

조수리서 1898년 '방성칠의 난' 고문서 햇빛

민란 진압 제주창의소 발급 무술년 '영군장 임명 전령' "당대 문서로 희귀 보존가치" 12개 주제에 한경면 생활상 '한경면 생활문화지'에 공개



1898년 '방성칠의 난' 당시 김대옥을 조수리 영군장으로 임명하는 전령.

1898년 제주 '방성칠(房星七)의 난'에 얽힌 문서가 발굴됐다. 제주시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발굴된 '한경면 생활문화지' (2019)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조수리 향토관이 소장한 해당 고문서는 민란을 진압하기 위해 만든 제주창의소(濟州倡義所)가 발급한 '영군장 임명 전령'이다. 한지에 쓰여진 이 전령에는 "1898년 무술년 2월에 제주창의소에서 조수리 김대옥(金大旭)을 조수리 영군장으로 임명하니 가버어 여기저기 말고 임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무술년은 제1차 제주민란으로도 불리는 '방성칠의 난'이 일어났던 해다. '방성칠의 난'은 1898년 2월 장두 방성칠과 당시 대정군 중면 광청리(光淸里) 주민 수백여 명이 제주목 관아에 물려가 가혹한 세제 징수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소장(訴狀)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민란으로 확산됐다. 방성칠이 이끄는 부대는 에월읍 귀일리에서 토벌군에게 궤멸되고 방성칠도 4월 4일에 처단되면서 민란이 평정된다.

그 무렵 제주에 유배됐던 김윤식의 '속음청사'를 보면 송두옥 등이 창의군(倡義軍)을 모아 난군(亂軍)이 장

악했던 제주읍성을 다시 탈환한다. 이번 전령 속 제주창의소는 '방성칠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송두옥 등이 설치한 창의소를 일컫는다. 문서 말미에는 '이 경우 조수와 낙천리민을 일체 영솔(領率)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한경면 생활문화지' 필진 중 한 명으로 관내 15개 마을을 돌며 고문서를 찾아내 우리말로 풀이한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이 자료에 대해 "제주창의소에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창의군을 소집하면서 창의군의 지도부에서 조수리 출신 김대옥에게 조수리와 낙천리 창의군의 통솔권을 내려주는 내용으로 '방성칠의 난' 당대의 문서로 희귀하며 보존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방성칠의 난' 문서를 세상 밖으로 꺼낸 '한경면 생활문화지'는 제주문화원(원장 김봉오)이 기획을 맡은 새로운 형태의 마을지다. 900여 쪽에 한경면 사람들의 생활상을 유적, 비석, 문서, 공동자원, 길과 집, 생활문화 시설, 도구, 재일제주인 생활상, 원로구



'한경면 생활문화지'에 실린 1973년 한경면 보리종산전진대회.

술 등 12개 주제로 나눠 살렸다. '문서' 편에는 고문서 말고도 금등·한원·조수·저지리 등 4개 마을리사무소에 보관된 1960~1980년대 현대 문서를 조사정리한 내용이 들었다.

1963년과 1970년 새마을사업에 동원된 마을사람들의 이름과 업무내용,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쥐잡기 사업에 따른 한경면 리동별 교육계획 시달 등 생활사의 일단이 드러난다. 1926년부터 2006년까지 작성된 '용당리 주전동 장막계'는 제주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서다.

한경면 관내에 소재하는 비석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총 554기로 파악됐는데 가장 이른 연대는 1757년 5월 수월봉에 세운 '영산비'였다. 마을 소식을 알리던 벽보판과 더위를 피해 쉬었던 쉼광도 주목해 마을의 대소사를 공유하는 여론 형성의 기능까지 담당하던 중요한 생활 문화로

그 가치를 알렸다. 1960년대 이후 마을별로 대표성을 띤 생활밀착형 업종이던 점빵·상점·이발소·정미소·빵집·복욕탕·서점·양복점·사진관·예식장·슈퍼마켓 등의 변화상도 기록했다. 맨 앞장에는 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진으로 보는 한경면' 70여 점을 실었다.

조은호 주민자치위원장은 발간사에서 "한경면은 제주도 곳곳이 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태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해 마지막 남은 제주도라는 극찬을 받으며 가장 살고 싶은 마을로 손꼽힌다"며 "한경면 생활문화지"가 우리 후손들에게 한경면의 가치와 자긍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비메폼.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말한판

<19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〇맹이 골맨. "떡보야- 우리 누님이영 혼디 딱랑 가게."
준네 골았저. "야오털야- 그 팬더레가 아니여게. 요기 이신 큰큰혼 바위 잘 방 놔두라. 이따그네 이디 포시 와사웨네."
〇맹이 골맨. "누님- 이들로 와 봅서. 이디 신 풀달이 방풍이영 하는 거 우파?"
〇맹이 골맨. "누님- 꿩계풀 달진 안흔게마슴. 나가 꿩계풀 잘 알아마슴."
준네 골았저. "게메- 경חד아이. 〇맹이가 더 잘 알아밤신게. 자- 응 카콜하게 틀야사 혼다. 떡보야- 느도 같이 혼다. 차룡은 이디다 갓당 놔사웨켜."

- * 제주어 풀이
 - * 풀달이 방풍이영 하는 거우파?: 풀들이 방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 * 방풍(방풍): <이름> 갯기름나물, 갯방풍. 남부지역 바닷가의 해안가 바위 틈에서도 자라고 뿌리는 약초로 쓰이며 어린 잎은 식용으로 활용한다.
 - * 앞상귀(섬, 섬상귀, 섬상귀, 썸, 썸상귀, 썸, 이파리, 입상귀, 입생기, 입생이, 앞상귀): <이름> 지푸라기. 나무나 채소의 잎.
 - * 꿩계(토끼, 툇계, 토끼, 꿩계): <이름> 토끼
 - * 게메(게뽕): <느낌> '그래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따위의 뜻을 지닌 말.
 - * 응 카콜하게 틀야사 혼다: 이렇게 깨끗하게 뜯어야 한다.

-부호- <이름> <이름> (명사) / <그림> <그림> (형용사) / <움직> <움직> (동사) / <어제> <어제> (부사) / <대어> <대어> (대명사) / <생> <생> (수사) / <느낌> <느낌> (감탄사) / <토> <토> (조사) / <예> <예> (조사) / <익은말> <익은말> / <속담> <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도서 예약 마음 싹 책 빌려보세요

도내 지자체·교육청 도서관 휴관중 예약대출 서비스 시행 한라·우당은 차안 수령 가능 스마트도서관 5곳도 재가동

현재 제주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들이 지난달 24~25일부터 휴관한 상태다. 이에 공공도서관마다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시민들이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휴관 기간에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도서관예약대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아이디 또는 대출자번호)한 뒤 자료를 검색하고 희망 도서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제주도서관, 서귀

포도서관 등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별도 홈페이지에 회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접속한 뒤 원하는 도서를 대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도서 대출 권수는 1인 당 5권까지다. 도서관 현관 입구 등 도서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책을 받아가면 되는데 이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서를 돌려줄 때는 도서관 무인반납기로 하면 된다.

특히 한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은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볼 수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에서 따온 '북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한다. 이용 가능한 요일은 수요일과 토요일이다.

이 역시 도서관예약대출 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차를 타고 수령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라도서관에서는 임시 휴관으로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생긴 만큼 장애인 주차장 앞을 지나면서 차안에서 책을 받아들 수 있다고 했다. 우당도서관은 차를 타고 소강당 외부 출입문 앞을 지나며 책을 대출할 수 있다. 우당도서관은 이와함께 임시 휴관했던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조천읍사무소 정문 입구, 일도지구 농협 하나로마트, 제주대병원, 일도1동복지센터 등 스마트도서관 5곳을 지난 5일부터 재가동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공공도서관 못가면 전자책 임시휴관 기간 이용자 늘어

코로나19 여파로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전자책(e북)과 오디오북 이용자가 평소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지자체·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15개 공공도서관만 하더라도 2월 기준으로 오디오북 총 6553권, 전자책 6만8287권을 소장하고 있다.

제주도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자도서관'을

접속하면 1인 5권까지 14일간 전자책을 대출해 PC나 모바일 등으로 볼 수 있다. 한라도서관 전자책은 문학, 역사, 사회, 경제, 자연과학 등 6654권에 이른다. 한라도서관은 "전자책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어 임시휴관 기간 중 대출권수가 평소보다 4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서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도서관 회원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제주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오디오북 키오스크에서 책을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대륙종합농기계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확장이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감귤 전정목 파쇄와 제주지형에 강한 맞춤형 파쇄기!!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덩크+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향 방향 300m)

767-3430

판매/AS문의 064-767-3430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전기종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종 정부지원(보조금) 농협융자 대상기종

남원1 300m

위미농협 주유소

효돈삼거리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예전위치